

사찰만치 물 좋은 곳 어디 있을까

샘과 수각(상)

우리나라 사찰만치 물이 좋은 곳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목이 높은 옛 스님들이 물색한 터에 좋은 물이 없었을 리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와 스님들이 즐겨 마신 차물을 구할 수 있으나, 없느냐 하는 것은 사찰의 터잡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석간수(石間水)가 나오는 곳이 많았다. 석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 틈으로 솟아오르는 물이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질구조를 가진 곳이 많은 우리나라는 돌 틈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석간수 형태의 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석간수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약수 중의 약수였다.

약수로 유명한 사찰은 의외로 많았다. 약수로 유명한 사찰을 꼽아보면 경주 석굴암, 장흥 보림사, 고성 옥천사, 경주 기림사, 하동 쌍계사, 고성 건봉사, 구례 천은사, 강화 정수사, 동두천 자재암 등이 있다.

좋은 물은 사찰터잡기 중요 요건

돌 틈서 나오는 석간수가 약수

석굴암, 옥천사, 건봉사 등 유명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 동악(東岳: 토함산)에 있었던 요내정(遙乃井)에 대한 기사가 전해진다. 불교미술학자 故 장충식은 이 요내정이 석굴암의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원인제공을 했고, 요내정 위에 석굴암을 건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샘물이 석굴암 내부의 습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다. 실제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석굴암 안에 있던 요내정의 물을 바가지로 떠 마셨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찰에 있었던 샘물에 대한 기록은 이 요내정이 최후인 것으로 보인다.

장흥 보림사 약수는 한국의 명수로 지정받은 약수 중의 약수이다. 샘물여행가인 최성민은 보림사 약수의 물맛을 감촉이 매끄러우면서도 깊이 음미하면 달착지근한 맛이 나는 유천(乳泉)이라고 평했다. 보림사 마당 한가운데 이 약수가 나는 샘이 있는데, 마당보다 낮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샘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나 그것의 구조와 형식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고성 옥천사에도 이름난 샘물이 있다. 옥천사라는 이름도 경내에 있는 옥천(玉泉)이라는 샘에서 유래된 것이다. 옥천사 옥천은 사시사철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데, 이 물로 차를 우려내면 그 맛이 일품이어서 특히 절집의 스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옥천사 스님들은 수각을 지어 샘의 수질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수질만큼은 예전처럼 유지되고 있다.

경주 기림사에는 오중수(五種水)라고 불리는 약수가 있었다. 오중수는 장군수, 오락수, 명안수, 화정수, 감로수라고 부르는 다섯 종류의 샘물을 말하는 것이다. 대적

광전 삼층석탑 옆에 있었던 장군수(將軍水)를 마시면 기개가 커지고 힘이 세어져 장군이 될 수 있고, 천왕문 안쪽의 오락수(烏啄水)는 물맛이 좋아 까마귀들도 와서 쪼아 먹었으며, 천왕문 밖 명안수(明眼水)를 마시면 눈이 맑아지고, 후원인 화정당 옆 마당의 화정수(和靜水)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북암인 감로암 뒤뜰에 있는 감로수는 물맛이 달아 차맛로는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약수 중의 약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기림사 오중수는 감로수 말고는 이미 자취조차도 없어지거나 샘의 형식이 변형되어 예전의 모습을 살피기 어렵다.

하동 쌍계사 금당영역에 있는 옥천(玉泉)은 물빛이 더욱 분명하게 암수색깔을 드러낸다. 왼쪽에 있는 암샘은 약간 흐린 듯 젓빛이 나며 물맛은 젓과 같이 부드럽고 달다. 오른쪽의 솟샘은 물빛이 투명하며, 차게 보이는데, 물맛을 보면 약간 짙은 느낌이 난다. 쌍계사의 본래 이름을 옥천사라고 지었던 것은 이 샘의 이름 때문이었던 것이다. 쌍계사 옥천 역시 원래의 형식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의 모습을 살피기 어렵다.

고성 건봉사는 봉황이 깃들어 사는 곳이다. <강희자전>을 보면, “봉(鳳)은 솟아나는 단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非醴泉不食)”고 했는데, 그런 연유인지 건봉사에는 예천(醴泉)이라 불리는 샘물이 있다.

천은사(泉隱寺)는 샘이 숨어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절이다. 창건 당시 천은사 앞뜰에는 물맛이 뛰어난 샘이 솟았는데, 이 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여 창건 초엔 절 이름을 감로사로 불렀다. 이 절이 임진왜란의 병화를 극복하고 조선 숙종 4년(1678)에 중건되는데, 이때 절 이름을 천은사라고 바꿨다. 절 이름을 바꾼 사유를 보면, 중건할 당시의 어느 날 갑자기 샘물이 솟기를 멈췄는데, 알고 보니 큰 구멍이 한 마리가 수맥을 막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구멍이를 잡아 죽였는데 그 뒤로는 샘이 솟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샘이 숨어버렸다는 뜻을 가진 천은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샘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구례 화엄사에도 예의 약수가 나오는 샘이 있다. 이 샘은 범종각 북서쪽 산자락의 울창한 동백숲 아래에 있다. 샘의 이름은 옥천이다. 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이 샘이 바로 화엄사 차 맛의 전통을 지켜온 샘물이라는 것이다. 화엄사 스님들은 요즘도 차를 우려낼 때 이 물을 쓴다고 한다.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소요산 자재암 역시 원효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나한전이 자리 잡은 동굴에 원효샘이라는 시원한 맛을 지닌 석간수가 솟아오른다. 차를 즐겼던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이곳을 지나 다 자재암 석간수 물맛을 보고는 감탄하여 ‘원효가 찾아 드니 돌 틈으로 단물이 솟고’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그밖에 우리나라 사찰에는 수많은 약수가 있고 그 약수를 담 아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샘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샘들 역시 우리나라 사찰의 경관적 체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경관요소가 아닐 수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청령사 샘물은 화강암 지반의 돌 틈으로 솟아나는 물이다.



기림사 오중수 가운데 하나였던 오락수 샘의 변형된 모습



무량사 샘물, 공양수와 스님들의 차물로 사용돼 왔다.



장흥 보림사 샘물은 한국의 명수로 지정 받은 약수 중의 약수이다.



쌍계사 금당영역에 남아있는 암수샘

부처님 진신사리·십대제자 사리친견법회 및 대원사 육화당 (교육관) 낙성식

천년와불이 계신 청정 영험도량인 대원사에서는 육화당 낙성식을 4월 29일(윤 3, 9)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법회는 국운번창과 평화번영을 기원하는 부처님진신사리 및 십대제자 사리 친견법회 49일기도 입재를 병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리친견법회는 국제지도자 협회 회장스님인 목탁 혜은 큰스님께서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오랜 인연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리친견법회 회향일인 6월 16일(음 4월 27)에는 생가마정수기 및 왕생극락발원영가 마정수기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대원사의 오랜 숙원불사인 육화당 낙성식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불자님의 가족은 물론 인연있는 친지, 이웃이 함께 무무 동참하시어 무진 겁 내로 지어온 업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량한 복락과 지혜를 얻 어시길 발원합니다.

- 사리친견 및 낙성식 : 2012년 4월 29일 11시
- 친견법회 회향 및 마정수기 : 2012년 6월 16일 10시
- 마정수기 동참금 : 1인, 영가 1위, 삼만원
- 온라인 접수 : 농협 825021-51-062356 (대원사)
- 문 의 : 종무소 055)632-1028, 010-6369-119

육화당 낙성식 및 사리친견 법회

- 1부 낙성식 및 큰스님 초청법회
- 2부 축하공연

(출연 : 관무용단, 김태곤가수, 도현스님, 하유스님, 전통예술단 등 다수출연)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포록산 대원사 주지 자원 합장